



###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6(土)	7(日)
 구름 많음 21/30℃	 맑음 20/31℃

#### News

- 쇠고기 청문회 여야 격돌 ②
- 광주비엔날레 이모저모 ③
- 월드컵 예선 '축구 전쟁' ⑧

#### Books

- 조선시대 양반의 사생활 ⑭

#### Entertainment

- 가수 도전하는 연기자들 ⑧



- 유명 배우들 단체 출연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 - 치자 ⑬



유망직업 전망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개막 축하 현대미술의 향연인 2008 광주비엔날레가 5일 개막돼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막을 축하하는 풍선을 띄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세계적 비엔날레로 키우겠다”

### 유인촌 장관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서 밝혀

## 광주, 현대미술 축제 속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국가 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혀 광주비엔날레는 향후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유 장관의 발표대로 정부차원에서 광주비엔날레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광주비엔날레는 한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거듭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와함께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국내외 미술관계자들로부터 2008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 광주비엔날레는 이번 7회 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세계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유장관 “국가 차원에서 지원”발표 =5일 개막식에 참석한 유 장관은 행

사 후 마련된 오찬 자리에서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원 계획이 실무적으로도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내년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광주비엔날레 사무동 신축예산에 국비 15억원과 시비 7억5천만원이 이미 책정돼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광주비엔날레는 지난해 ‘신정아 가짜 박사 파문’ 등으로 줄어든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제2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유 장관이 언급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인 비엔날레 특구 육성 사업에 포함된 계획안일 가능성도 크다”면서 “광주비엔날레만을 위한 특별법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13년 역사의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66일간 미술 축제 화려한 출발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이날 오전 10시 광주문예회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66일간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

도지사, 국내외 미술관계자·언론 등 1천70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대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현대미술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었다”면서 “전 세계 예술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와 상생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규이 엔지니어 예술총감독은 작품과 전시개요를 설명한 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미술계에 기억될 성공적인 미술 축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중외공관내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전시 공간을 돌며 작품을 관람했다. 뉴욕타임스(미국), 르몽드(프랑스) 등 해외 언론들은 주제 없이 열리는 이번 전시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유명 미술잡지인 ‘아트 인 아메리카’ 엘레노 히트니 기자는 “최근 현대 미술의 중심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광주비엔날레가 그 중심에 있다”고 평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 서남해 온난화로 수온 상승 아열대성 어류 급증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전남 서남해안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자리돔과 참치, 망치고등어 등 제주도 이남해역에서 서식하는 아열대성 어류들의 출현이 잦아지고, 이들 어류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전남 연안에서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가 크게 바뀌고 있다.

5일 전남도와 남해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온대성 어류가 주로 서식해왔던 전남 서남해안의 수온이 올 여름들어 예년보다 1~2도 가량 상승하면서 참치와 전갱이, 강달돔, 선홍치 등 종전까지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아열대성 어류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잡히고 있으며 특히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망치고등어도 2~3개월 빨리 어관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수 인근 해역의 경우 지난달 초 평균수온은 섭씨 26.4도로, 지난 5년간 평균수온인 24.5도에 비해 1.9도가 높아졌다. 또 완도

인근 해역은 23.5도로 1.3도, 그리고 목포 인근 해역은 26.4도로 5년간 평균수온보다 1.5도가 각각 상승하는 등 전남 인근 해역의 수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수온이 높아지면서 전남 서남해안에 서식하는 어종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특산인 자리돔이 소량이나마 거문도 인근해역에서 불잡히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여수 근해에서 아열대성 어류인 참치 3천여 마리가 무더기로 어획됐다. 또 매년 8~9월께 수온이 크게 높아져야만 잡히던 망치고등어가 올 들어서는 4~5월 무렵부터 여수 인근해역에서 나타나고, 고등어와 전갱이 등 전통적인 아열대성 어류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 소득대출

### 정부 생활공감정책

내년부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0~5세 영·유아 126만명에게도 양육비가 지원된다.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득대출이 이루어지고 외관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기 어려운 계층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준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득 저리대출 확대, 빈곤층 아동 양육비 지원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7년 기준 398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보육시설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만 0~5세 영·유아 126만명을 상대로 소득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장애 어린이들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을 3배 가량 확대하며 0~12세 아동의 경우 내년부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질환 중 8종류에 대해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해준다.

/연합뉴스 <2면으로 계속>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530-9318